1. 우암
   1. 우암의 소개

송시열(宋時烈, 1607년 12월 30일(음력 11월 12일) ~ 1689년 7월 19일(음력 6월 3일))은 조선의 문신·성리학자이다. 그는 주자학의 대가였으며, 당색으로는 서인, 분당 후에는 노론의 영수였다.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이언적, 이이, 이황, 김집, 박세채와 함께 인신(人臣)으로서 최고 영예인 문묘 종사와 종묘 배향을 동시에 이룬 6현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송사열의 자는 영보(英甫), 아명은 성뢰(聖賚)·성래(聖來), 호는 우암(尤庵)·우재(尤齋)·교산노부(橋山老夫)·남간노수(南澗老叟)·화양동주(華陽洞主)·화양부자(華陽夫子),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또, 그는 효종과 현종, 두 국왕을 어린 시절에 가르친 스승이었으며 별칭은 대로(大老), 송자(宋子), 송부자(宋夫子)이다. 1633년(인조 10) 경릉참봉으로 출사하여 그 후 대군사부, 진선, 장령, 찬선, 세자사부, 이조판서, 의정부좌의정, 우의정,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 행판중추부사,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에 이르렀다.

1600년대 중후반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으로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또한 특히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청나라가 중국 지역의 주인이 되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고, 이에 맞춰 조선도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이 필요로 한 것은 강력한 국가 지도 이념을 구상하고 추진하 수 있는 인물이었고,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인물이 바로 우암 송시열이다. 노론의 영수로써 북벌론, 예송논쟁을 통해 조선 문신의 역할도 했으며, 주자학의 대가로써 학자의 면모도 보여준 우암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대에 걸쳐 조선 중후기 정치와 사상계를 골고루 이끄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 1. 우암의 생애
     1. 출생과 가계
        1. 송시열은 1607년(선조40) 12월 30일에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군 구룡리의 외갓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양친은 사옹원 주부를 지낸 은진 송씨 송갑조와 곽자방의 딸 선산 곽씨이다. 그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는 마을 앞의 강물이 이유 없이 바싹 말랐다가, 그가 태어나자 다시 물이 불었다고 하며, 어머니인 곽씨 부인은 밝은 달과 같은 구슬을 삼키는 태몽을 얻어 그를 잉태했다고 한다. 또한 그의 아버지인 송갑조도 송시열이 나기 전날 밤에 마침 종가에 제사를 모시러 청산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홀연히 공자가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그 중의 한 제자를 가리키며 "이 아이를 그대에게 보내니 잘 가르치시오." 라고 말한 뒤 사라지는 꿈을 꿨다고 한다. 송갑조는 송시열이 태어난 이후 꿈에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보았다 하여 "이 아이는 성인이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여 성인이 왔다는 뜻의 성뢰(聖賚), 성래(聖來)라는 이름의 아명을 지어줬고 후에 시열(時烈)로 고쳤다. 그의 학자로의 위대함을 예견할 수 있는 태몽이었다.
     2. 유년기와 소년기
        1. 송시열은 3세 때에 혼자서 이미 글자를 깨우쳤으며, 기억력이 좋고 암기가 능하였으며 5세 무렵에는 스스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7세 때에는 그의 두 형이 읽은 글을 받아 적을 줄 알았을 정도로 비상하다. 8세에 친척인 송이창의 제자가 되어 친척이자 첫 스승 송이창의 아들인 송준길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훗날 양송(兩宋)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되었다. 옥천에는 신령스럽고 괴이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가 무당이 살던 곳을 지날 때면 떠들어대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를 피하였다.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이 도련님이 오시면 귀신이 바로 내리지 않는다" 라고 했다 한다. 이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신통하게 보게 되었다.
     3. 청소년기
        1. 1618년 12세가 된 해에, 광해군 집권 이후 인목대비 폐모론이 나왔으나 홀로 의리를 지키며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출입하다가 발각되어 삭직되고 금고당한 아버지 송갑조로부터 《격몽요결(擊蒙要訣)》·《기묘록(己卯錄)》 등을 배웠다. 이때 부친은 우암에게 “주자(朱子)는 후세의 공자이고 율곡(栗谷)은 후세의 주자이니,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주자, 이이(李珥), 조광조(趙光祖), 김시습(金時習) 등의 절의를 교훈삼아 본받도록 가르쳤다. 그 중 송시열은 주자의 예론에 깊이 공감하였는데, 이후 그는 주자를 평생 사표로 받들고 신념을 지켜나갔다. 이는 송시열의 학문은 주자학이라고 할 정도이다.
     4. 김장생, 김집의 문하생
        1. 그 뒤로 송시열은 아버지 송갑조를 비롯해 사계 김장생, 김장생의 아들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등 당시의 유명한 학자들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특히 1625년(인조3), 김장생의 문하생이 되어 김장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장생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김장생으로부터 《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가례(家禮)》 등을 배웠고, 1631년 김장생이 작고하자 다시 그의 아들인 신독재 김집을 스승으로 받들고 수학하였는데, 이때부터 전적으로 주자의 글을 읽으며 주자의 예학대로 생활하였다. 송시열은 김장생의 문하생으로 활동하면서 송준길, 윤선거(尹宣擧), 유계(兪棨), 윤휴, 이유태(李惟泰) 등을 만난다. 1625년(인조3)에는 19세의 나이로 도사 이덕사의 딸 한산 이씨와 결혼했는데, 부인 한산이씨는 고려 문정공 목은 이색의 후손이다.
     5. 청년기
        1. 1633년(인조11), 송시열은 사마시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하여 생원(生員)이 되었다. 바로 최명길의 천거로 경릉(敬陵) 참봉이 되었으나 곧 1개월 만에 사직하였고, 1635년(인조13)에 대군사부(師傅)가 되어 봉림대군(효종)과 인평대군을 가르쳤다. 그는 청나라의 침략을 당한 조선의 현실을 금나라의 침략을 당한 남송과 같이 보았고, 주자의 사상이 이를 극복하는 해답이라 보았다. 송시열이 항상 주자를 언급하자 효종이 '말마다 옳은 이는 오직 주자이며, 일마다 옳은 이가 오직 주자이십니까' 라 반문했다고 할 정도이니 송시열이 얼마나 주자를 예찬했는 지 알 수 있다.
        2. 1636년(인조14)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강화도로 피신하는 제자인 봉림대군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대신 인조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고, 그는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1637년 화의가 성립되었다. 인조가 청태조를 알현하러 남한산성을 나섰을 때 송시열이 인조를 따라 나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화의가 성립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심양에 인질로 잡혀갔을 때에도 따라가지 않았다. 화의로 크게 실망한 송시열은 이후 별제(別提), 용담 현령(龍潭縣令), 익위(翊衛), 지평(持平) 등에 임명되었지만 출사(出仕)하지 않고 모두 사퇴한 뒤 10여 년간 고향에 은거하며 강학(講學)과 교육, 독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 때 그의 문하에서는 수많은 학자가 배출되어 문인으로 이단하, 윤증, 민정중, 민유중, 김기하, 권상하, 이여, 정호 등이 배출되었다.
     6. 관직생활
        1. 1649년(효종1),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이 임금이 되자 부름을 받았다. 송시열은 곧 어명을 받들어 다시 사헌부 장령에 등용되었고, 세자시강원 진선(世子侍講院進善)을 거쳐 사헌부 집의가 되어 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3조목에 이르는 장문의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송준길의 상소로 김자점이 유배가 되었는데, 대제학 조경(趙絅)이 찬술한 《장릉지문》(長陵誌文)에 따르면, 당시 집권당인 서인 공서파(功西派)의 김자점 일파가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으며 효종이 신진 사림을 등용하여 북벌을 꾀하려 한다고 청나라에 밀고를 하게 되고, 청나라에서 한성부에 사신을 보내 조선 조정에 압력을 가한다. 송시열은 당시 집권당인 서인의 당원이었으나 청서파(淸西派)에 속했는데, 이후 공서파의 김자점이 영의정이 되자 사직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2. 1653년(효종4) 다시 효종의 부름을 받아 출사해 청나라를 정벌하여 존주대의를 세워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해 3월에 충주 목사로 나갔고, 1654년 사헌부집의(執義), 1655년(효종6) 이조 참의 등에 연이어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출사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하며 송준길 등과 강학과 후진 양성 및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1656년 윤 5월 스승 신독재 김집의 부고를 접하고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하여 3개월간 상복을 입는다. 스승 김집의 상을 탈상한 뒤에 다시 이조참의로 출사하였다. 1657년 찬선(贊善)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그해 8월에 정유봉사(丁酉封事)를 올려 '시무 19조'를 건의하였다. 1658년 다시 찬선에 등용, 이조 참의, 예조 참판에 임명되어 사양하였으나 특지(特旨)를 내리자 소명(召命)하여 상경하였다. 효종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이해 7월 6년 만에 다시 찬선에 임명되어 벼슬길에 나왔고, 9월에 특명으로 차헌대부 이조판서로 승진했다. 이후 1659년에 효종이 갑자기 승하할 때까지 절대적인 신임 속에 북벌계획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였다.
        3. 1668년 우의정으로 취임하였으나, 좌의정 허적(許積)과 뜻이 맞지 않아 한때 사임하였다가 1671년 다시 우의정으로 복직하였다. 이어서 허적이 물러가자 1672년 좌의정에 승진하고, 그의 후임으로 김수항(金壽恒)이 우의정이 되었다. 그러나 효종이 돌아갈 때의 대왕대비 복상 문제와 장지 문제는 항상 말썽의 대상이 되어 벼슬길도 평탄치 못하였다. 마침내 현종이 돌아가고 숙종 즉위에 이르러 영중추(領中樞)로 복직했다. 1674년 8월 23일 성균관 유생 이심 등은 송시열이 ‘덕을 쌓은 유학의 종주(宿德儒宗)’라면서 “현자(賢者)의 진퇴는 구차스럽게 할 수 없지만 군주의 정성스러운 예절이 어떠한가에도 달려 있다”며 ‘정성스럽게 모셔야 한다’고 상소했다. 같은 날 전 영의정 김수흥과 그를 구원하다 유배형에 처해졌던 간관(諫官)들에 대한 처벌도 모두 무효화되었다. 8월 24일에는 숙종이 가주서(假注書) 이윤(李綸)을 보냈으나 송시열은 이미 서울을 떠나 버린 뒤였다. 이윤이 뒤따라가 국왕의 말을 전했음에도 광주(廣州)를 거쳐 수원으로 가 버렸다. 숙종은 송시열을 거듭 타이르면서 현종의 능 지문(誌文)을 지으라고 명했으나 송시열은 모두 거부했다. 이후 영중추부사를 거쳐 9월 17일 행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전임되었다. 그러나 1675년(숙종1) 1월 13일 함경남도 덕원(德源)에 유배된 이후 이해 6월에 남인 삼사의 맹공을 받아 경상도 장기(長鬐)로 이배(移配)되었고, 1677년(숙종3) 3월에는 유배지인 경상도 장기에서 부인 이씨(李氏)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덕원·웅천(熊川)·장기(長鬐)·거제(巨濟)·청풍(淸風) 등지로 귀양살이를 하다가 풀려 나왔다. 유배지에서도 위리안치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사대부와 평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그는 위리안치의 신분이었으나 가르침을 청하는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또한 한자를 모르는 아녀자들을 위해 '사서삼경'과 '주자가례'를 한글로 번역하여 집필하기도 했다.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1680년 6월 석방되어 귀향하였다. 바로 그해 10월에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 겸 영경연사로 기용되었다가 1683년(숙종9) 고령을 이유로 치사(致仕)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기로소에 들어갔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7. 만년
        1. 그 후 금강산 지방을 여행하고 사표를 낸 후로는 다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충청도 청주 화양동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는데, 1688년 희빈 장씨가 숙종의 아들을 낳자 1689년 1월 이를 원자로 정하는 것을 반대하여 숙종의 눈 밖에 났다. 또한 희빈 장씨의 아들 왕자 균이 왕세자가 책봉되자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들어 이를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가 숙종의 비위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어 숙종은 크게 노하여 그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였다. 이때 남인들은 다시 그를 죽여야 된다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의론이 분분하여 마침내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다시 불러 심문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세하니 숙종은 또 이를 허락하였다. 제주도에서 나온 그는 광양에 이르러 수제자인 권상하 등이 영접하였다. 육지에 당도한 송시열은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려다가 죽는 것이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고 수많은 문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한성부까지 상경하는 길을 시종하였다. 그는 신발이나 우마를 타지 않고 한성부까지 걸어서 도보로 올라왔다. 그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지날 무렵 김수항의 아들들과 장성의 하서 김인후 후손들인 김기하, 김시서와 이실지등 측근들이 그에게 찾아왔다. 남인은 그를 한성부로 압송해 국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인 정승인 의정부영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이 ‘굳이 국문할 필요가 없다’면서 ‘성상께서 참작해 처리하라’고 권하자 금부도사가 만나는 곳에서 사사하라고 명한 것이다.
     8. 사사
        1. 우암은 6월 3일 도성에 3배를 올린 뒤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이한다. 당시 그의 나이 83세였다. 송시열은 아주 많은 나이에 사망을 했다는 점이 그것도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 아주 특이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신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대신은 역적이 아니면 사형당한 전례가 없었는데 송시열은 역적이 아니라 죄인들의 수괴라는 애매한 죄명으로 사형을 당했고 그것도 국문을 당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정읍에서 서둘러 사약을 마신 점이 상당히 특이한 죽음이다.
     9. 사후
        1. 송시열이 죽은 후 5년 만에 다시 서인이 집권하자 신원(伸寃)되어 조정에서 관직을 복구하고, 1694년 수원(水原), 정읍(井邑), 충주(忠州) 등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되었다. 그 뒤 문정(文正)의 시호를 내렸다. 1697년 송시열, 송상민, 권상하의 위패를 모신 남간사를 건립했다. 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칭송과 비방이 엇갈리지만 서인 정권 하에서 1744년 영조(英祖)에 의해 문묘(文廟)에 배향되고, 세손 시절부터 그를 존경하던 정조(正祖)에 의해 효종(孝宗)의 묘정에 추향(追享)되었다. 또한 정조는 그를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주자에 버금가는 송자(宋子), 송부자(宋夫子)로 추대하고 국가의 스승으로 선포하였다. 대전 광역시 동구 소제동에 있던 우암 별당 기국정을 1926년 남간정사에 옮겼다.
  2. 우암의 정치
     1. 북벌론과 시무 19조
        1. 청나라에서 치욕을 몸소 겪고 돌아온 효종은 1649년 즉위하자 말자 척화파들을 대거 등용하여 절치부심 북벌 의지를 불태웠으며, 우암은 이러한 효종의 의도에 부합하여 불벌 계획의 핵심 인물로 재등장하게 된다.
        2. 1653년 효종의 부름을 받아 출사한 송시열은 청나라를 정벌하여 존주대의를 세워야 함을 역설했다. 1657년에는 찬선(贊善)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그해 8월에 정유봉사(丁酉封事)를 올려 '시무 19조'를 건의했다. 송시열은 정유봉사에서 북벌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민이 우선이고, 기강을 진작해야 하며, 군주의 사치를 억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5조에서 군정을 서두르지 말고 민심을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민심의 원고는 부역의 번거로움 때문이고, 이는 용도의 무절제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쓸데없는 경비를 옮겨 양병의 자본으로 삼으면 오랑캐의 효시할 수 있다”하면서, “오늘의 급선무는 양민 · 양병하는 것”이라 하였다. 먼저 민생안정이 이루어지면 양병도 따라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14조에서는 “근본이 강하면 정신이 적을 대적할 수 있고, 강하지 않으면 재앙을 초래한다.”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기강이 해이함을 지적했다. 특히 군율이 엄하지 않음을 걱정하면서, 금위군이 교만하고 사나우며, 항상 도성에 모여 있어 매우 온편 사리에 맞고 원만하지 않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군주의 사치를 경계하는 부분은 여러 조항에서 보이고 있다. 또한 대내의 공주의 저택이 호사스러움을 지적하며, 이러한 일은 효종이 와신상담의 뜻은 없고 안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뜻 있는 자들의 맥이 풀려버릴 것을 걱정하며 군주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희빈, 공주들과 함께 풍성함과 사치를 즐김은 성상의 마음이 방탕한 바이며 아랫사람을 단속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또 산림에 은둔한 현사로 하여금 전하께서 원대한 염려를 잊은 것으로 의심하게 되어 대궐에 나가고 싶어하지 않게 하는 이유라 하였다. 여기서 산림을 언급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효정의 ‘원대한 염려’를 도울 이는 바로 산림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북벌의 추진에 조야의 도움을 받으려면 군주의 검소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종의 사치함에 대한 질책은 재이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 천재(天災)와 지이(地異)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 대한 군주의 책임전가에까지 미치고 있다.
        3. 〈정유봉사〉에서 송시열의 강조하는 바는 8조와 19조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송시열은 〈기축봉사〉 에서와 마찬가지로 춘추대일통을 강조하면서, 대통이 분명하지 못하면 인도가 어지럽고, 인도가 어지러우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 염려하며, 효종의 재위에 대해 "황천이 전하에게 신성한 왕위를 부여해 주신 이유는 장차 왕리를 잡아 인심을 바루고 왕도를 밝혀 민극(백성의 중도)을 세우며, 사설을 배척하며 사추(선비의 추향)를 통일시키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자 · 주자의 공을 이을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서 드러난 송시열의 강조점은 ‘인심’과 ‘왕도’ 그리고 ‘사추’에 있다. 효종의 재위는 양민하고 왕도정치를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선비를 추향함으로써 정통의 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송시열이 주자학을 신봉하는 골수 성리학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효종의 통치는 왕도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사림정치의 도학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송시열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북벌에 있어서도 성리학적 사상의 틀 안에서 관념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조에서는 “사욕을 극복하여 조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회복에 뜻을 둔 자는 결코 손바닥을 치고 칼을 어루만지는 것에 뜻을 두지 않는다”고 한 〈기축봉사〉 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자의 글속에 요순·공맹의 도가 담겨져 있음을 주장하며, “덕업을 높임으로써 황천이 크게 명한 마음과 선왕의 부탁한 뜻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즉 효종이 유념할 것은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니, 덕업을 쌓는데 매진하라는 것이다.
        4. 1659년 3월 효종은 송시열을 은밀히 불러들이면서 승지와 사관과 내시 등 늘 임금 곁에 붙어서서 수종하는 벼슬아치들을 모두 내보냈다. 이처럼 임금과 신하 단 둘이 만나는 것을 독대(獨對)라 하는데, 경국대전에 임금은 어떤 경우라도 독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효종은 규정을 어겼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대를 했다. 이 자리에서 효종은 자신의 생각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송시열이 기록하여 남긴 것이 〈악대설화〉이다. 북벌에 대해 효종과 송시열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날의 독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5. 송시열은 양병을 위해서는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군주의 사심을 없애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말은 결국 북벌을 반대하는 논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일로 신하들이 임금이 송시열과 '독대'한 것에 대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들고 나와 오히려 분란의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다. 효종은 세자를 시켜 은밀하게 송시열에게 비밀편지를 보내는 등 은밀하게 상의를 거듭하였다.
        6. 이 시기에 효종은 그에게 친히 초모(貂帽), 초구(貂裘) 등을 계속 송시열에게 하사하여 자신의 북벌 의지를 보이며 특별한 기대를 갖기도 한다. 그는 효종과 함께 북벌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듬해(1659년) 봄 효종이 죽자 그 계획은 중지되었다. 한편 효종의 병이 위독하여 당시의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더불어 그를 불러 뒷일을 부탁하려는 눈치였으나 두 사람이 병상에 들어갔을 땐 이미 왕은 붕어한 뒤였다.
        7. 후대의 평가에 의하면, 우암은 구호로만 북벌을 외치면서 북벌론을 정치이념으로 삼은 서인 정권이 유지되는데 주력하였을 뿐, 북벌을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 국제정세 속에서 청나라에 대항한 북벌론이 얼마나 무모하며 비현실적인지 우암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2. 1차 예송 논쟁
        1. 1659년 효종에 죽자 바로 벌어진 1차 예송논쟁에서 미수 허목을 필두로 한 남인과의 정치투쟁을 승리로 이끈 우암의 서인정권은 1674년 숙종이 즉위할 때까지 무풍대로를 달렸다.
        2. 1차 예송 논쟁은 효종의 죽음으로 효종의 계모이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 조씨의 복상 문제가 제기되자 남인은 삼년복을 주장하였고 우암은 기년복을 주장해 논쟁을 펼친 것이다. 효종이 인조의 맏아들로 왕위를 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는 차남이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상중에 자의대비가 맏아들에게 행하는 예로써 3년상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효종의 상을 당해서는 몇 년 상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서인의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이 차남이므로 원칙대로 당연히 기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인의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기에 3년상이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인과 남인의 복상 논쟁은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 달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정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정쟁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재야 선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3. 송시열은 중국의 주례에 따라 기년설을 주장했는데, 윤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의례 참최장의 주석을 찾아서 서자는 장자가 될 수 없고 본부인 소생 둘째 아들 이하는 모두 서자로 간주한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남인이 그가 왕통과 종통을 나누려 한다고 공세를 가하자 그는 일단 이론으로 접수했다. 남인이 계속 정치 공세를 가하자 의례의 3년조의 소에 가통(家通)을 계승하였더라도 3년 상복을 입지 않는 사유인 사종지설과 체이부정(體而不正), 정이부체(正而不體)설을 찾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남인은 송시열을 탄핵하여 역모로 몰아가려다가 실패하였고, 3년설을 주장하며 송시열이 효종의 왕통을 부정한다는 정치 공세성 모함을 하며 송시열을 제거하려 하자 그는 기년설을 관철시키고 《대명률(大明律)》,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을 근거로 한 국제기년설(國制朞年說)에 따르도록 한다. 이 일로 남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송시열은 서인의 최고 지도자로의 자리를 굳혔다. 이때 남인 허목은 송시열의 주장에 반박하여 왕가의 예는 일반 사대부와 같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은 예를 논함에 있어서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4. 1차 예송논쟁은 송시열의 승리로 끝났지만, 예송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이 정권을 사이에 둔 당쟁으로 치닫는 계기가 되었다. 송시열의 주장에 패한 후 남인은 송시열이 종통(왕실)과 적통(적서, 가통)을 구별하려 한다며 송시열의 사상이 불순하다며 공격했다. 이후 윤선도가 송시열의 사형을 주장한 이후, 허목 등이 송시열의 사형을 주장했다. 남인은 그를 사형시켜야 된다며 비난했고, 처음 남인의 주장을 사상의 문제, 학문의 문제, 이념의 차이로 인정하고 접수했던 송시열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남인의 정치공세에 분노하게 된다.
     3. 2차 예송 논쟁
        1. 우암이 봉림대군을 만나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다면, 우암의 나이 63세에 문제적 군주였던 숙종(1661∼1720, 재위: 1674∼1720)을 만나면서 굴곡을 겪게 된다. 1674년 벌어진 2차 예송논쟁에서 왕권(王權)을 주장한 남인과 신권(臣權)을 주장한 서인이 맞붙은 정치투쟁에서 왕권강화 의지가 남달랐던 숙종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심판을 보게 되자 당연히 왕권을 주장한 남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 결과, 임진왜란(1592년) 이래 실로 오랜만에 남인 정권이 들어서고 서인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우암은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를 당하여, 1680년 숙종대 첫 번째 환국인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숙청되고 다시 서인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함경도에서 포항 장기, 거제 등으로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6년 만에 해배가 되었다.
  3. 우암의 사상
     1. 이기일원론
        1. 송시열는 이기 논쟁에서 이와 기는 하나라고 하는 이기일원론을 계승했다. 주자학의 대가로서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황의 이원론적인 이기호발설을 배격하고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을 지지, 사단칠정이 모두 이라 하여 이와 기는 하나라는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다. 산림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후 그의 견해를 시험하고자 많은 문인들이 이황과 이이, 조식 중 누구의 사상이 정통이냐는 질문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주자의 뜻을 정확히 계승하는 학자를 나는 정통으로 본다 하며 학문 연구에 있어서 당론이나 당색에 구애 받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선도가 그가 효종의 정통성을 부인했다는 상소와 허목이 그를 사형에 처하자는 상소를 연이어 올리면서 그의 태도는 경직된다. 그럼에도 당색을 떠나 주자의 학설을 올바르게 계승한 학자만이 정통이라는 신념은 변하지 않는다.
     2. 주자절대주의자
        1. 성리학(性理學)이란, 원래 인간의 본성(性)과 하늘의 이치(理)가 근본적으로 같으므로 무릇 선비란 하늘의 뜻을 깨달아 인간의 본성이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도록 제도나 윤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철학이자 정치이념이다.
        2. 공자 시대에 만들어진 유교 경전을 주자가 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 쉽게 풀이하였다고 주자 성리학(=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명청교체기에 애매해진 존화양이론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자학의 강경파는 ‘학문적으로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자가 이미 완성하였으므로, 주자의 주석에서 한 획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자 원리주의 입장을 완고하게 주장하는 주자절대주의자 중심에 우암이 자리하고 있었다.
        3. 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학문도 동등하게 평가하여 수용하거나 혹은 미수와 같이 스스로 자유롭고 독자적인 경전을 해석한 주자상대주의와의 학문적 대립은 1683년 서인이 노론(주자절대주의)과 소론(주자상대주의)으로 쪼개진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암이 속한 서인-노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을 정리해보면, 광해군과 북인정권 반대, 인조반정의 주역, 숭명배청의 존화양이론, 북벌론, 소중화론, 그리고 주자절대주의이다.
  4. 우암의 문학
     1. 우암의 작품
        1. 우암의 문집은 『송자대전』 215권, 『부록』 19권, 『송서습유』 9권, 『속습유』 1권, 『속습유부록』 2권 등 246권으로 그 양이 방대하다. 도학이 문학을 빌어야 본체를 밝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암의 문학을 고찰하는 것은 그의 도학을 살피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암은 많은 문집을 남겼을 뿐 아니라 각 문체에 능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운문과 산문에 걸쳐 40여 종의 문체를 구사하여 한문학의 문체를 다양하게 구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문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게 하는 한 징표이다. 그에게는 수많은 문인들이 있었고 900여 명의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송시열은 학자로써 수많은 글과 글씨들을 남겼다. 특히 그는 글씨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의 글씨는 많은 사람들이 와 부탁하고 받아갈 정도로 유명했다.
     2. 우암 송시열의 문학과 문학관
        1. 우암의 일생은 유학의 정통을 이어 받아 이를 배우고 몸소 실천하며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사업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우암의 문학론은 그의 삶의 총체에서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우암은 문학을 순수 심미 창조활동이나 독자적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가 실리지 않은 글은 빈 수레와 마찬가지로 무용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도와 문이 일치할 때 비로소 좋은 글이 된다는 도문일치를 주장했다. 우암이 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도’는 바로 유학이자, 도학이다. 도학이나 유학의 가르침이 글 속에 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글이 못되고 무용지문이 된다는 논리이다.
        2. 우암은 한시, 산문 등의 한문학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성 교육에도 힘을 썼기 때문에 한글로 된 문학도 꽤나 있으며, 비록 보관이 잘 되지 않아 희소하지만 여자들에게 쓴 편지도 있다.
     3. 우암 송시열의 시문집, 『송자대전』
        1. 『송자대전(宋子大全)』은 1787년(정조11)에 간행된 215권 102책의 방대한 기록인 시문집이다. 정조는 평소 우암 시열을 존경하여 그의 영정에다가 친히 어제시를 남겼다. 이는 송시열 생전인 1683년에 작성된 영정들 중 송시열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경계하는 사자성어를 쓴 영정의 중앙부 상단에 친필로 기입하였다. 즉위 후 정조는 송시열을 송자(宋子), 송부자(宋夫子)라 하여 국가의 스승으로 추대하고 송시열의 문집과 자료를 모아 국비를 들여 『송자대전』으로 간행했다.
        2. 『송자대전』은 1717년(숙종43)에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따라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간행한 『우암집(尤庵集)』과 이보다 앞서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가 편집한 황강본 수백 권 등을 대본으로 하여 『주자대전(朱子大全)』의 편차 방식에 따라 엮은 것이다. 1907년(순종1)에 병화로 소실되자 1929년 후손과 지방 유림들의 협력으로 중간(重刊)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송서습유(宋書拾遺)』 9권 4책과 『송서속습유(宋書續拾遺)』 1권 2책도 아울러 간행되어 모두 225권 108책에 달한다.
        3. 『송자대전』은 현존하는 문집 중에 ‘자(子)’라는 극존칭의 글자가 표제에 붙어 있는 것으로 유일하다. 그리고 여느 문집과 달리 소·차·서·명·축문·제문·신도비명·묘갈명 등이 문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그의 정치적 · 학문적 위상이 컸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이 책에 그의 춘추대의와 존주정신(尊周精神)이 일관되게 보여 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4. 권두에 8편의 어제 묘비명과 제문·어필 발문· 「대로사묘정비명(大老祠廟庭碑銘)」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정치적 위상이 드러난다. 권1에는 부(賦)와 오언고시 · 칠언고시, 권2에는 오언절구 · 칠언절구, 권3에는 오언율시, 권4에는 칠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권5에는 봉사(封事)가 실려 있는데, 효종 즉위 초에 시무(時務) 및 유학의 정치적 이상을 13개 조항에 걸쳐 올린 「기축봉사(己丑封事)」도 포함되어 있다. 송시열은 특히 「기축봉사」에서 마지막 조항인 ‘정치를 잘하여 오랑캐를 물리치라(修政事以攘夷狄)’에 강조점을 두어, 북벌론의 합당함을 제시하고 북벌이야 말로 국가 대의라는 것을 표방하였다. 권6~21에는 소차(疏箚), 권23~25에는 서계(書啓), 권26에는 헌의(獻議)가 실려 있다. 권27~129에는 무려 103권에 걸쳐 수천 통의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 서한을 주고받은 인물로는 당시 정계와 학계의 주요 인물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권130~136에는 잡저(雜著), 권137~139에는 서(序), 권140~145에는 기(記), 권146~149에는 발문 및 후서(後書), 권150에는 명(銘) · 잠(箴) · 찬(贊), 권151에는 축문(祝文), 권152 · 153에는 제문(祭文), 권154~170에는 신도비명(神道碑銘)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신도비는 종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만 세울 수 있다는 점과 그 대상이 다양했음을 고려해 보면, 송시열의 정치적 · 학문적 위상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권171에는 비(碑), 권172~180에는 묘갈명(墓碣銘), 권181에는 능지(陵誌), 권182~188에는 묘지명(墓誌銘), 권189~201에는 묘표(墓表), 권202~205에는 시장(諡狀), 권206~211에는 행장(行狀), 권212에는 유사(遺事) · 어록(語錄), 권213~215에는 전(傳)이 실려 있다.
        6. 권213에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순절한 윤집·오달제·홍익한을 다룬 「삼학사전(三學士傳)」과 명나라에 망명하여 청나라와 싸우다 생포된 임경업을 다룬 「장군 임경업전[林將軍慶業傳]」이 있어 주목된다. 송시열이 청나라를 배척하며 대명의리를 주창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장군 임경업전」에는 송시열이 삼학사와 임경업을 존숭했으며 그들을 비판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4. 우암 송시열의 서예관
        1. 그는 서예 역시 하나의 도학으로 생각했다. 글씨에 대한 미학적 입장 또한 동춘당과 우암은 창고함을 추구한 미수 허목과는 뚜렷이 차이가 난다. 즉 동춘당과 우암은 글씨를 심획이자 덕성의 표출로 간주하면서 기교가 아니라 마음수련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글씨를 도학연마의 연장으로 보는 이황이나 이이 등과 같은 입장이다.
        2. 우암은 직사상을 바탕으로 서예도 인간의 도와의 어울림이 있어야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도예일치(道藝一致)인식을 가졌으며, 인간 내면의 덕성이 외면의 예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생동하는 필치를 보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3. 이와 같이 우암의 글씨는 직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세계와 꾸밈없는 자신의 성정이 반영되어 일체의 구애 받음 없는 강건하고 웅장한 필치를 드러냈으며, 기교 없는 운필은 때로는 강하고 억세기도 하고, 때로는 농묵으로 쓰고 때로는 담묵으로 쓰며, 때로는 노도처럼 때로는 잔잔하여 동정의 필치로 자연스런 그의 성정을 드러낸다. 도예일치(道藝一致)를 추구한 우암의 독특한 글맛이다.